

투데이 칼럼

조기교육 트렌드는 '안전'

9.11테러 당시 글로벌 투자 은행인 '모건스탠리의 기적'을 잘 알고 있다. 보안책임자 리 레스콜라가 1분 1초가 아깝다고 하는 회사의 특성을 무릅쓰고 매년 4회씩 8년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반복했기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2,687명의 임직원과 250명의 방문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던 것이다.

레스콜라는 1988년 12월 펜안 항공기 추락 테러사건을 계기로 경계와 대비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천에 옮겼다고 한다. 이야기는 귀찮고 불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을 관리자의 의지로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다. 어린 시절부터 교통, 화재, 지진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조금은 암울하다. 학생들이



강창환

전북119안전체험관 행정팀장

안전교육을 받는 횟수는 한 학기에 1~2회가 전부다. 그나마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이유는 안전교육 연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전문적인 교재와 참고자료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에 대한 과정이 제도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의식, 안전실천, 안전지식, 안전윤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습내용을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회의 생활여건 자체가 첨단화 되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복잡 다양해졌다. 따라서 전문적인 조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조기교육

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까지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는 일이야 말고, 21세기형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인은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일어난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항상 점검, 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스스로도 안전관 관련된 행동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에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안전의식 수준의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안전불감증이다. 안전불감증이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마땅히 불안해 하고 개선해야겠다고 생

각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조기안전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조기 안전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자신이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불의의 상해 또는 사고는 예방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해이므로 환경 속에서 잠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형성된다면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물론 생활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자율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동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

전북 인구 180만 붕괴 직전

전북도가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실은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러다가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180만 명대도 무너져내릴 것 같다. 이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일자리 대책 강구가 인구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역시나 어두운 것 천지다.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는 보도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왔다. 경제 전망이 미세먼지 속처럼 흐린데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 이러한 지적들을 전북도는 아프게 들어야 한다.

고용을 최지라는 성적표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전히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부족하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는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용 열기도 더 달구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 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밀바다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전북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느끼는 것이 있을 터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전북도는 이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목소리 크게 내야

전북도는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도지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또다시 생각나는 오늘이다. 도지사는 저번에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국가의 발전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을 축으로 발전시켜왔다면 이제는 동서를 축으로 해야 한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한국은 분단 이후 수십년 동안 남북을 축으로 발전의 관도를 그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은 광주광역시보다 훨씬 더 큰 도시가 되었다.1949년에 전주가 시로 승격되었을 때 대전은 이쪽의 태인과 함께 읍으로 발돋움했을 뿐인데 말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지금은 동서 발전을 축으로 지방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경북과 경남도 공감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는 게 전북 발전의 첩경이 되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도민의 숙원은 그 언제나 지역 발전이니까 말이다.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예전과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 지름길이다. 비수도권에 불리한 예비

타당성 평가에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더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본보기 사실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했거니와 그 실상을 보자면 아쉬운 게 하나둘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은 균형발전의 목소리를 크게 낼 때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심에는 자존심도 필요하다. 예전에는 인구 수가 형편 없던 수도권의 읍 단위 도시들이 이제는 전주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 충청도의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전주를 추월했거나 따라잡을 할 기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 지역은 거주 인구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감소 현상만 계속 되고 있어서 여간 서운한 게 아니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전주시장을 비롯해 다른 시군의 단체장들도 그 책임이 크다. 예전에 도지사는 '스क्रम행진'을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도내 각 시군의 입장을 챙겨주고 리드해 나가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동서로 돌려잡도록 그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

독자제언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를 구제적으로 보인다.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영유아 안전띠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착용해야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성인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종사자가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다.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전벨트 착용 시 몸을 조여오기 때문에 답답함에 왜 매는지 의문점이 들 수 있다.

안전벨트는 상대적으로 충격 흡수가 좋은 골반과 가슴을 고정시켜 차량 밖으로 뿜겨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벨트만 정확하게 착용해도 탑승자 생존율이 50% 이상 증가한다.

OECD 주요 회원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보면 1위 독일의 착용률은 97%이다.

우리나라는 9%로 26위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전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겠다.

이진재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천연가스관 폭발로 무너진 건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천연가스관이 폭발, 이로 인해 한 건물이 무너져 3일(현지 시간)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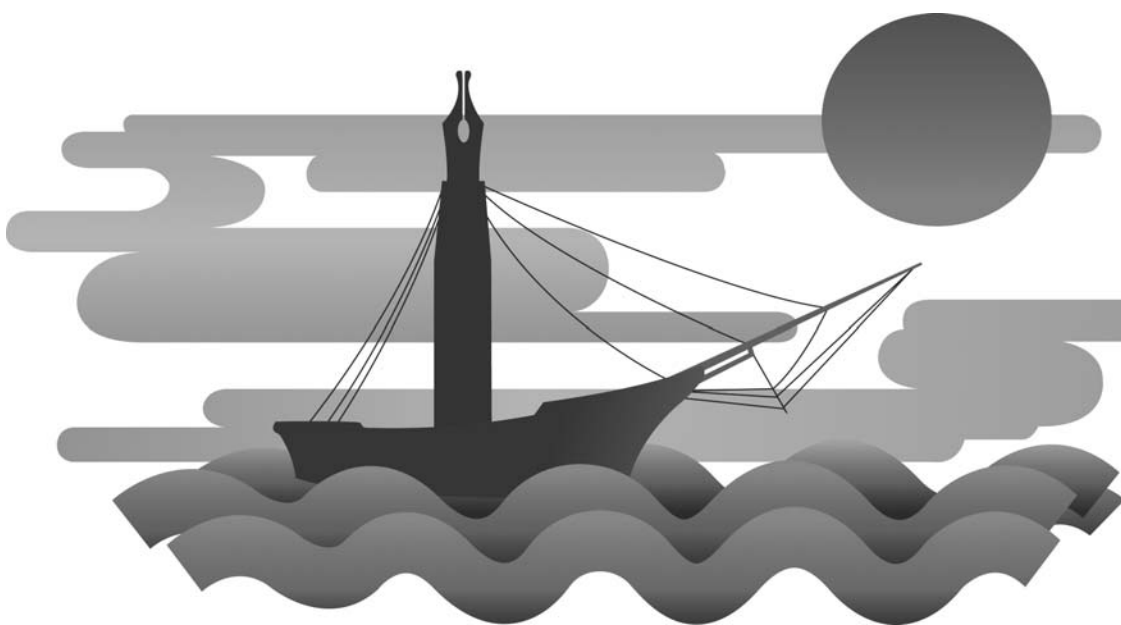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